

SAFETY KOREA

For Safe and High Quality Products

Everyone



2021 WINTER
VOL.32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함께,
알리다



CONTENTS

2021 WINTER
VOL.32



Safety

S

안전, 살피다

06

High Safety

고령자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겨울용품 준비하기!

10

Hi Safety

겨울철 필수품 전기매트류,
KC마크와 안전 기준 잊지 마세요!

All

A

모두, 지키다

12

Tech&Safety

고령자의 감정까지 세심히 살피요!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

14

Always Safety

추운 공간에 온기를,
실내 난방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16

안전 동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지속가능한 건강한 생활을 제공하다

20

리콜 Now

2021년 11월 기준 리콜 현황,
한눈에 파악해보자

22

리콜 알리미

소비자 위해 우려 제품
안전성 조사 실시

Focus

F

시선, 맞추다

26

Recall History

가장 포근해야 할 가정,
안전 햇살 반짝 뜨도록
창문 블라인드 안전관리 강화

30

트렌드 컨슈머

건강도 트렌디하게 지키자
헬스플레저의 시대

32

전문가 칼럼

제품 안전 관리의 조건,
소비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36

Safe Tube

겨울철 야외 활동의 필수품, 스키!
인증 받은 제품으로 타자

Everyone

E

함께, 알리다

38

KC내돈내산

생활제품 속 KC마크 안전을 챙겨요

40

세이프티 톤

어린이용 겨울 외투 KC마크 놓치지 마세요!

42

현장 Focus

함께 사는 대한민국, 함께 하는 제품안전!
모두가 만들어가는 안전한 세상
-제품안전의 날,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

46

세이프티 In

2021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수상작

48

FORUM

제품안전정보 활용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 기여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 현장

50

제품안전 QnA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전기통신제품안전과

52

구독자 참여

국가기술표준원 계간지 <SAFETY KOREA>

2021년 겨울호 통권 제32호

발행인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편집위원 이위로, 최현주, 박종훈, 양정민, 조형민, 김성은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75

편집·제작·디자인 이루다플래닛(주) 1566-7699



High-SAFETY



고령자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겨울용품 준비하기!

단단하게 여민 옷깃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듭니다.

탄성을 자아내던 붉은 잎들이 자취를 감추고 순백의 계절인 겨울이 코앞입니다.

큰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 요즘, 두툼한 외투부터 전기장판까지 지난 일 년간 묵혀 두었던 겨울용품들을 꺼냅니다.

시린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의 이웃인 어르신들도 살피야 하는데요.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외출 한번 하기도 쉽지 않은

고령자들을 위한 겨울용품, 안전까지 생각한 제품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겨울맞이 준비로 안전을 챙겨요

김안전 할머니의 하루는 아침 일찍 시작됩니다.

날이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아들 내외가 오기로 한 날입니다.

가까이 살아 매주 보는데도 할머니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벌써부터 저 멀리서 토끼마냥 폴짝폴짝

뛰어오는 손녀가 보이는 듯합니다.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준비할 생각에 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로 하는데요.

손녀딸이 용돈을 모았다며 선물로 준 신발을 신습니다.

발에 꼭 맞춘 듯 편하고 가벼워 평소에도 잘 신고 다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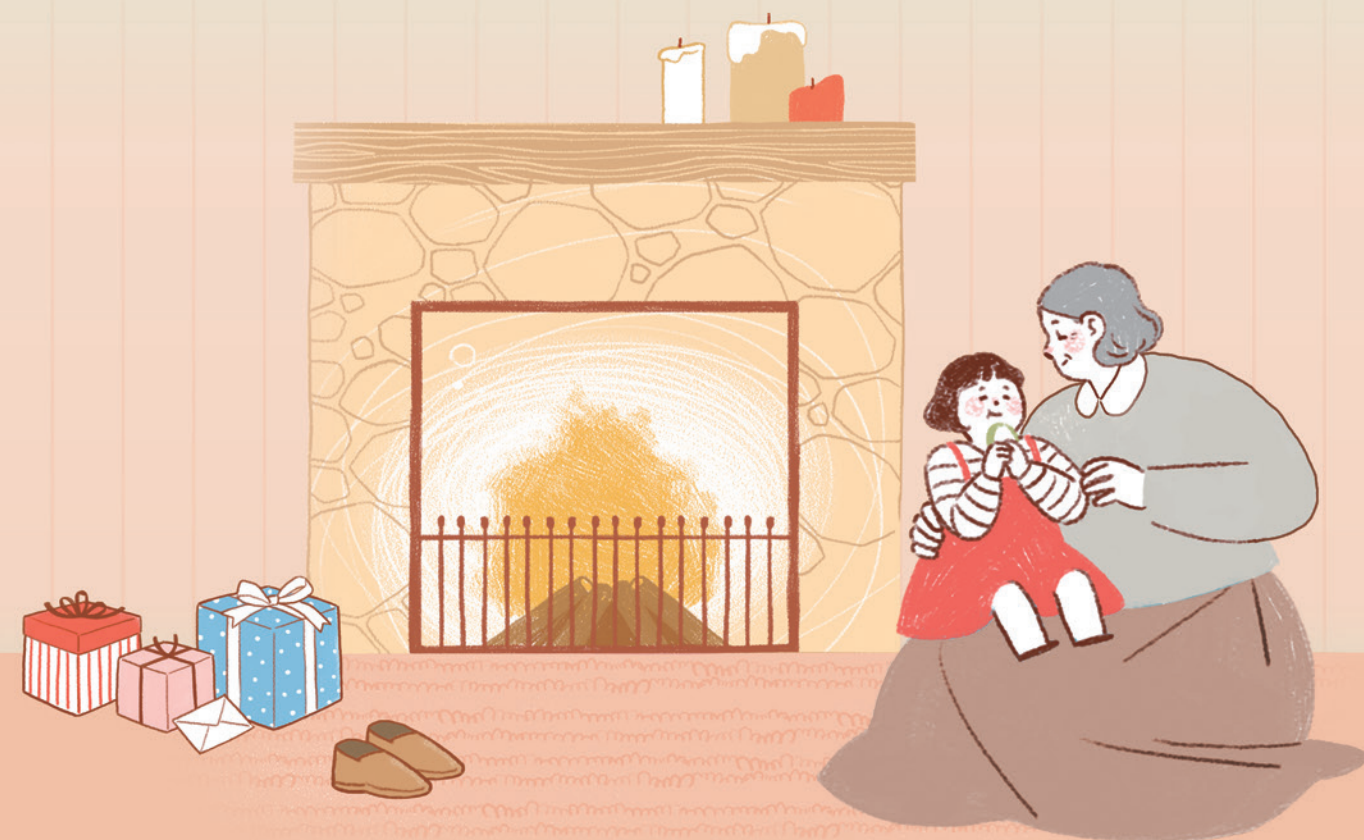
신발입니다. 할머니는 해마다 겨울이 되기 전 필요한 물품들을

사오는 아들 내외가 기특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고령자용 신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고령자용 신발은 일상생활에서 고령자
가 보행 시 신는 신발이다. 벨크로나 지
퍼, 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고안해야 하며 재료에
따라 고무, 염화비닐, 가죽, 발포신발로
나뉜다. 미끄럼 저항, 치수, 부속품부터
접착강도와 마모성까지 항목별로 세세
하게 시험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니 꼼꼼
하게 확인해야 한다.



넘어지지 않도록, 지팡이도 꼼꼼하게!

할머니는 전을 부치고 고구마도 찌느라
매우 바쁘지만 힘든 줄을 모릅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손녀딸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할머니와 함께 있겠다며
짐을 한가득 들고 왔네요. 아들 내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할머니가 짊고 있는 지팡이를 보는데요.
지팡이 끝의 고무가 마모되어 있습니다.
네발 지팡이라 다른 지팡이보다 안정적이어서
외출 시에 항상 쓰던 제품이었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아들 내외가 할머니에게 새 보행차를
선물했기 때문인데요. 바퀴까지 달려있어
걸기에 훨씬 수월해서 할머니 마음에 쏙 듭니다.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의 보행을 돕는 도구로, 일자형, 조절식, 접이식, 조립식, 다족 지팡이의 종류가 있다. 체형과 습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팡이의 길이, 손잡이의 굵힘 정도, 하중 견딤 정도, 손잡이 끝의 고무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제품의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 시 주의해야 하며, KC인증마크 역시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고령자용 보행차

보행차는 바퀴의 유무에 따라 워킹프레임, 롤레이터, 워킹테이블의 기준 사항이 모두 다르므로 안전기준 준수 사항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 보행 시 안정성 확보 또는 지지를 위해 브레이크 및 하중에 대한 시험이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고령자의 체중을 온전히 실어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KC마크와 리콜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젠 안심, 겨울나기 준비 끝!

선물 받은 보행차를 가지고 잠시 산책을 다녀오기로 하는데요.
아들 내외와 손녀딸과 함께하니 든든하고 벅찬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자랑하고 싶은데요.
마침 이웃집 정씨 할머니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묻는 정씨 할머니의 말에는 대답도 않고
선물 받은 외투며 보행차를 자랑하는데요.
정씨 할머니도 이에 질세라 휠체어 테이블을 보여줍니다.
거동이 불편하다고 자식들이 휠체어에
테이블을 설치해 준 것인데요.
아들 내외는 뒤에서 할머니들의 자랑을 웃으며 지켜보고
손녀딸은 할머니 옆에 꼭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할머니는 몸과 마음까지 온기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올 겨울도 별 탈 없이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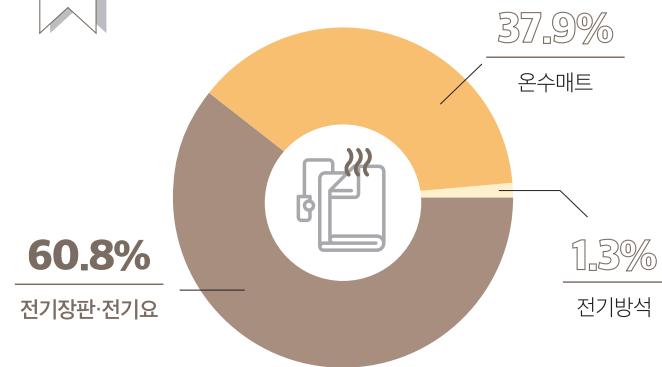
고령자가 사용하는 휠체어 위에 장착할 수 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테이블이다. 사용 중에 쉽게 접혀지지 않도록 하고 고령자의 인체나 의류에 닿는 표면의 다듬질 상태가 매끄럽게 가공되어 있어야 한다. 휠체어 테이블의 제품이나 최소 포장 단위마다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주의사항 등이 표기되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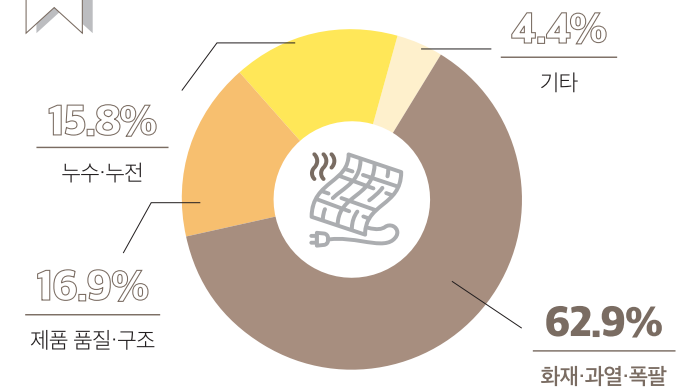
겨울철 필수품 전기매트류, KC마크와 안전 기준 잊지 마세요!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겹겹이 끼입어도 시린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사람들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전기장판, 전기요, 온수매트 등 전기매트류의 사용률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화재나 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국민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전기매트류 사용 안전기준을 시행 중이다. 전기매트류는 구입 시 기기에 정격 입력전력 표시 여부와 KC인증마크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온수매트의 경우 온수조절기에 표시된 참고사항 등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열기기로 인한 안전사고 통계를 통해 올바른 사용 수칙을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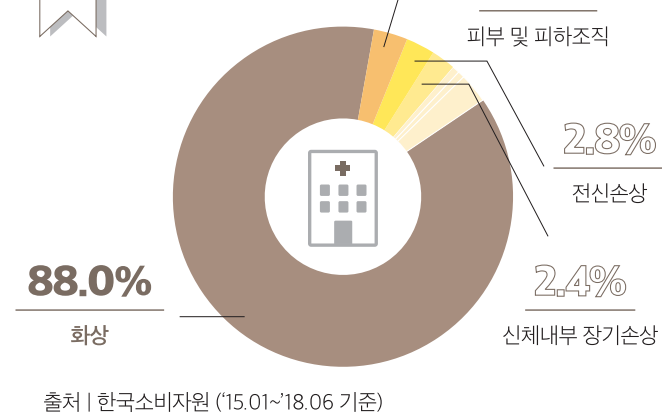
1 품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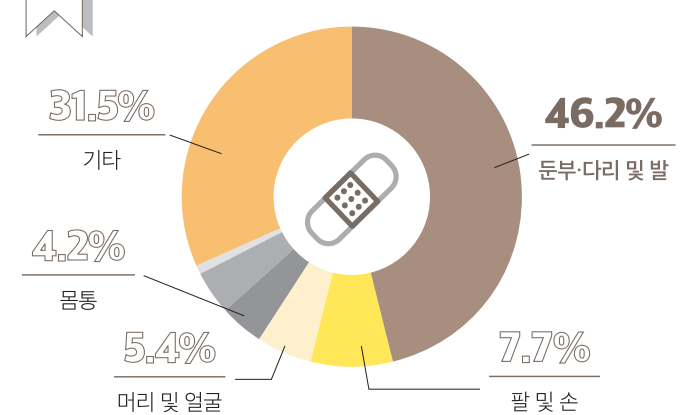
2 유형별 현황



3 증상별 현황



4 부위별 현황



사용 시 주의사항

- 매트리스는 구기거나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 누수가 발생할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전원플러그를 뽑는다
-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며,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 맨살 접촉은 피한다
- 전기보일러와 매트리스 사이에 호스(튜브)가 꼬이거나 혹은 꺾인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다
- 온도조절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는다

보관 시 주의사항

- 사용 후에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아두거나 스위치를 꺼두어 과열이나 합선을 예방한다
- 내부 열선이 꺾이면 합선되어 감전·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을 등글게 말아서 보관한다
- 장시간 보관한 제품은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온도조절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 후 사용한다
- 조작이 어려운 노약자나 영·유아는 사용하지 않는다

고령자의 감정까지 세심히 살피요!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



현대 사회로 들어서며 과학기술과 의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자연히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사망률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2030세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매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이는 현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고령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자식들을 타지로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말동무가 필요하다. 그럴 땐 ‘미스터마인드’의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이 제격이다.

단순히 기계적인 응답이 아닌 진짜 친구처럼 친근한 대화를 통해 생활환경까지 생각하는 기특한 제품이다.

현대의 과학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미스터마인드의 김동원 대표를 만났다.

☞ 특별히 인공지능 기술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김동원 대표 몇 년 전부터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 매체에서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아직 먼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사회 취약 계층의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미래의 기술들을 아이들에게는 체험으로, 어르신들에게는 경험으로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 기회들이 계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층 간 갈등이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을 개발하며 가장 중점을 둔 부분과 어려웠던 부분, 해결방법이 있나요?

김동원 대표 무엇 하나 쉬운 과정은 없었지만 특히 어려웠던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시캡슐 개발과정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드웨어에 관련된 것은 잘 몰랐기에 제품의 생산 공정을 포함해 개발비 마련과 판로를 개척하는 것 역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의 치매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한다는 생각에 내구성과 편리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꾸준히 시험을 계속했고 지금의 시캡슐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 ‘감성대화’가 가능한 말동무 인형의 작동원리와 특징은 무엇인가요?

김동원 대표 말동무 인형은 어르신이 인형의 오른손을 잡고 말을 걸면 그 질문에 대한 의미 분석 후 답변을 하는 구조입니다.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미세한 감정을 읽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말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횟수와 패턴에 따라 치매, 우울증이나 고독사 같은 어르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굳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아도 먼저 말을 걸어주는 수다 기능 등 어르신들의 생활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제품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높은 기술력으로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계시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경영방침이나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김동원 대표 기술은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이 기술은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오랜 시간 사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잘못 이용하면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스터마인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술을 만드는 능력보다 이러한 기술들을 사람과 사회를 위해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인성을 중요시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미스터마인드의 우리 동료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말동무 인형은 KC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검증되어 여러 지자체와 AI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셨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김동원 대표 미스터마인드는 제품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이용자의 신뢰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KC인증이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통했는지 감사하게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 증대와 홍보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미스터마인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동원 대표 현재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최적화된 움직임은 로봇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요. 2022년 상반기까지 국내 1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연구소 멤버들이 연구 중인 어르신 질병 예측 알고리즘을 완성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치매 극복 솔루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내로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을 통해 전 세계 어르신들을 통합해보고 싶습니다. 미스터마인드에서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동료를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운 공간에
온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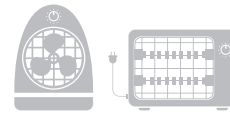
실내 난방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SPACE HEATER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겨울은 더 추워진다고 한다. 온난화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북극의 한기를 가두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차가운 공기가 더 넓은 지역으로 풀려나오는 것이다. 올해에도 매서운 한파가 예상된다. 온기가 부족한 공간에 따스함을 전해주는 실내 난방기구. 공간과 용도에 맞는 실내 난방기 선택 팁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온풍기? 히터? 어떤 제품을 선택할까?



필요한 공간에 맞는 보조 난방을 잘 활용하는 것은 난방효율을 높이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실내 난방기기는 온풍기, 전기히터·스토브, 컨벡터, 라디에이터, 난로 등의 제품이 있다. 온풍기는 팬 소음이 있지만 난방 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우수하다. 하지만 난방 범위가 국소적이고 실내를 건조하게 만든다. 전기 히터·스토브는 적외선에서 나오는 복사열을 이용하는데, 적외선의 특성상 열전달이 빠르다. 하지만 발열온도가 높아 화상과 화재 위험이 있고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욕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라디에이터나 컨벡터는 공간 전체를 덥히는 효과가 있으며 주변을 건조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난방 속도가 느리므로 미리 켜두어야 한다. 할로겐·석영관·카본·근적외선 등의 방열 램프를 활용한 난방기기는 발열 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크며 열효율이 우수하다. 하지만 빛에 의한 눈부심이 있고 충격에 취약하다. 난방기는 발열체의 온도가 높고, 깨지는 소재도 있으므로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매일 사용하는 실내 난방기, 익숙하다고 방심은 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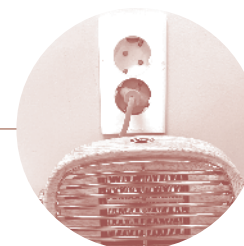
날씨가 추워지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난방기이다. 익숙한 용품이라고 방심은 금물이다. 매년 실내 난방기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봄부터 2021년 봄까지 난방기기와 관련한 화재 발생 건수는 대략 760여 건, 인명피해는 100여 명에 달했다.(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20.05~2021.04 자료) 난방기구 사용 시 특히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이다. 실내 난방기를 구입할 때는 KC인증마크를 잘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 특성에 맞는 장소에 설치하며 사용 방법대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 및 사용 시 주의할 점



전기온풍기나 전기히터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제품들은 가연성 소재나 먼지가 없는 곳에서 사용하고, 난방기 본체나 송출구 등이 무언가로 덮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디에이터는 작동 중 기기 자체가 뜨거워지므로 직접 만지지 말고, 내부의 액체가 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난로는 직접 불을 피우므로 화재 위험과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실내보다는 아웃도어용으로 사용하며 주기적인 환기와 연료 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 방열 램프를 사용하는 제품은 커튼이나 기타 가연성 물질과의 안전거리를 확인하고, 높은 위치에 설치 시 바닥으로부터 최소 1.8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TIP. 실내용 난방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Tip!



①

콘센트 바로 밑에 난방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②

습도 조절과 환기에 신경 쓴다.



③

과열방지를 위해 난방기를 덮지 말아야 한다.



④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거나 누전차단기가 달린 고용량 멀티탭을 사용한다.



안전동행
IKEA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지속가능한 건강한 생활을 제공하다 <이케아 코리아>

올해 5월, 글로벌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에서 자발적 리콜이 진행됐다.
이케아 코리아의 '헤로이스크(HEROISK) 및 탈리카(TALRIKA)' 제품군이었다.
소비자의 신고로 내부조사에 착수해 제품 내구성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이케아 글로벌 차원에서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제품들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착한 기업, 이케아 코리아를 만나봤다.

Q1 안녕하세요.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생활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입니다. 이케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멋진 디자인과 기능의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가치를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품질과 우수한 디자인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모크래틱 디자인(Democratic design)' 철학을 바탕으로, 디자인·기능·품질·지속가능성·낮은 가격 5가지 요소를 갖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케아에게 좋은 제품이란 고객의 가구 사용 방식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최선의 제품을 실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수한 품질을 위해 개발 단계부터 모든 원료와 제품을 실험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중국에 있는 '이케아 테스트랩'을 통해 이케아 제품의 안전성 테스트뿐 아니라 직원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콜 제품



Q2 이케아 코리아는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하고 편안한 삶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홈퍼니싱 브랜드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만큼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이 있나요?

이케아의 홈퍼니싱 제품이 함께하는 집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제품 개발 과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제품 기획, 디자인, 개발을 거쳐 고객을 만나는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디자이너, 제품 개발자, 엔지니어는 제품이 원래 용도로 사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용도 외에 활용된 경우까지 전부 고려해 매우 엄격한 실험과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판매 전부터 현지 시장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 요건을 추가해 현지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3 올해 5월, '헤로이스크 및 탈리카 그릇 등 7종'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셨는데요. 자세한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이케아는 해당 제품이 수개월간 사용 후 파손되었다는 해외 고객의 보고가 접수됨에 따라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헤로이스크(HEROISK) 및 탈리카(TALRIKA)에 사용된 소재는 PLA(폴리유산 또는 폴리락타이드)입니다. 이는 재생 가능한 원료로 만든 보다 지속가능한 소재로, 이케아에서 새롭게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파손 보고가 접수된 후 이케아는 해당 소재가 뜨거운 음식을 담는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에 모두 사용 시 내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품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이케아는 이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헤로이스크 및 탈리카 그릇, 접시, 머그컵 총 7종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케아는 사람과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되고자 하며, 적절한 제품에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 시 PLA는 여전히 내구성이 뛰어난 우수한 소재라고 믿습니다.

“

이케아는 언제나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글로벌 알람 접수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의 상황을 보고받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Q4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 자발적 리콜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리콜을 진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해당 식기류 제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에 따라 안전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선제적 조치로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케아는 언제나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글로벌 알람 접수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의 상황을 보고받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각 국가의 모든 안전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출시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안전 요소도 엄중하게 생각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콜 제품



Q5

이번 리콜 이전에도 제품 사용 안전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이케아는 지속적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꾸준히 제품 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줄이 없는 창문 블라인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케아는 기존 블라인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줄의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발견하고 줄이 있는 블라인드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현재 이케아의 모든 블라인드 제품은 줄이 없거나 줄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디자인됐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제품 실험과 개발을 통해 일상의 불필요한 위험을 줄여나가는 이케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Q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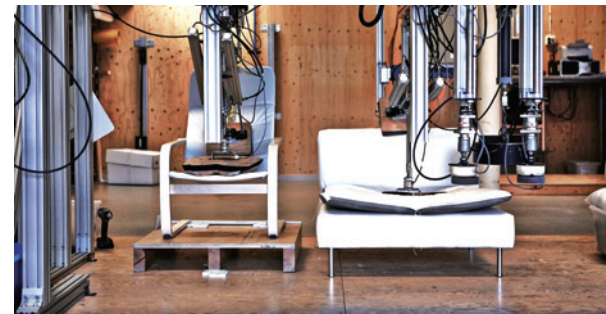
기업 내부적으로 제품안전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나 혹은 이를 위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케아는 특히 어린이 제품의 안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은 과연 몇 가지나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제품과 사용자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케아의 모든 어린이 제품은 가격대에 관계없이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제작됩니다. 제품을 실험할 때는 의도된 사용 방식과 의도하지 않은 사용 방식이라는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최소화합니다.

Q7

이케아 코리아는 세이브더칠드런에 수익금 기부를 하는 등 꾸준히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인데요. 어떤 취지로 이러한 긍정적인 활동을 펼치는지 궁금합니다.

홈퍼니싱 전문 기업인 이케아 코리아는 좋은 이웃으로서 지역 사회와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취약



안전성 검사 자체 테스트

계층의 공간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시작한 ‘맘업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 미혼모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이들의 자녀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아이들이 디자인하는 ‘사고스카트(SAGOSKATT)’ 소프트토이 컬렉션 수익금으로 이케아 매장 인근 초등학교의 놀이터 개선 사업을 진행해 아이들의 놀 권리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및 여성·아동·청소년 거주 그룹홈 대상 ‘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더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고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8

앞으로 이케아 코리아의 목표나 나아갈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이케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들고자 합니다. 좋은 생활이란 안전한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이케아는 앞으로도 최우선 순위인 안전을 위해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 테스트를 시행하고, 국제 규정 및 국가별 규정, 관련 표준을 준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디자이너, 공급업체, 직원 모두가 고객에게 더 안전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케아의 DNA입니다.

Q9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께, 혹은 소비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고객을 위해 가장 훌륭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인터 이케아 그룹 법률 및 표준 전문가 마리에 벤델 스벤손(Marie Wendel-Svensson)의 이 한마디는 제품 안전에 대한 이케아의 가치를 가장 잘 나타냅니다. 이처럼 이케아의 최우선 순위인 안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직원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들이 언제나 믿고 찾는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디자이너, 공급업체, 직원 모두가 고객에게 더 안전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케아의 DNA입니다.

2021년 11월 기준 리콜 현황, 한눈에 파악해보자

2021년 11월 기준 국내 리콜 건수(총 27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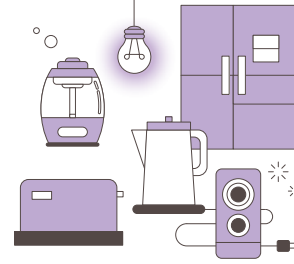
2021.01.01~2021.11.30

국내 리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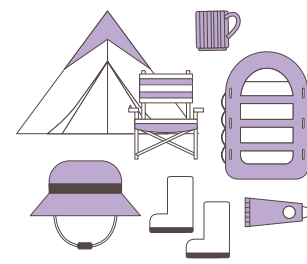
어린이용품 **179**(275.28%)

의류 53 완구 52
기타 74



전기용품 **55**(53.94%)

냉난방기구 0 가전제품 3
조명기구 21 기타 31



생활용품 **40**(70.79%)

의류잡화 8 가구 8
레저용품 8 기타 16

위해 유형별 리콜 건수



151(224.91%)
유해물질



30(35.98%)
화재 및 화상



25(17.02%)
감전



19(18.98%)
질식



12(34.82%)
제조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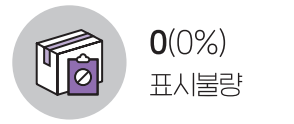
8(24.29%)
낙상



8(4.85%)
골절



1(1.54%)
열상



0(0%)
표시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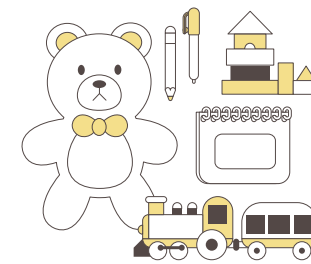


20(37.63%)
기타

2021년 11월 기준 해외 리콜 건수(총 2,06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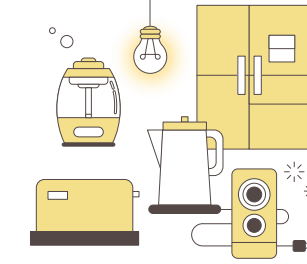
2021.01.01~2021.11.30

해외 리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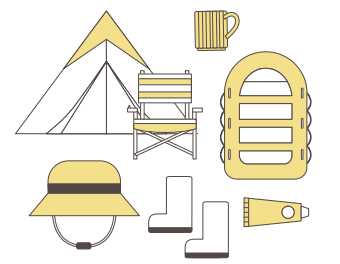
어린이용품 **1,087**(52.69%)

의류 209 완구 680
기타 198



전기용품 **540**(2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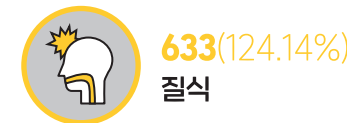
냉난방기구 41 가전제품 84
조명기구 127 기타 288



생활용품 **436**(21.13%)

의류잡화 199 가구 62
레저용품 88 기타 87

위해 유형별 리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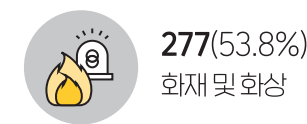
633(124.14%)
질식



443(85.88%)
유해물질



304(58.78%)
감전



277(53.8%)
화재 및 화상



172(33.32%)
낙상



25(4.72%)
열상



25(4.62%)
표시불량



2(0.33%)
제조불량



182(34.41%)
기타

2021년 어린이용품과 전기용품,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리콜 현황이 공개되었다.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통계를 보면 국내 179건, 해외 1,087건으로 어린이용품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국내의 경우에는 유해물질에 의한 리콜이 가장 많았으며,
해외에서는 질식에 의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비자 위해 우려 제품

안전성 조사 실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수요가 많으면서 사고도 많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완구류, 전기밥솥, 전동킥보드 등 35개 품목 773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753개 제품(97.4%)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20개 제품(2.6%)은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배터리 과충전 시험기준 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한편, 타이어는 고속성능·내구성능 표시사항 등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 총 2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실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제품의 자세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리콜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 더 많은 리콜 제품 확인하기 |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
www.consumer.go.kr

| 정기 5차 안전성조사 개요 |

조사기간	'21.7~10월(4개월)
조사대상	(어린이) 장난감,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우산 등 430개 제품 (전기) 전기밥솥, 에어프라이기, 진공청소기, 스팀다리미, 커피메이커 등 267개 제품 (생활) 가정용압력솥, 전동킥보드, 휴대용사다리, 스케이트보드, 안경테 등 76개 제품
주요시험항목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안전성 시험, 과충전시험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 납(기준치: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100mg/kg(그 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카드뮴(기준치: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소비자 행동 요령 |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어린이제품

No.	품목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제품 사진
1	아동용 이단침대	(주)핀란드아	621432(제조)	매트리스 상단 최대 높이 표시 (기준치: 최대 높이를 나타내는 직선을 침대에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사다리의 가로막음 길이 (기준치: 가로막음은 최소 300mm에서 최대 400mm이어야 함) 안전울타리 틈 공간 (기준치: 틈 공간은 최소 한 방향으로 75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상단침대와 하단침대의 조임 (기준치: 상단침대에 500 N의 힘을 가하여 시험했을 때 하단 침대와 분리되지 않아야 함)	
2	어린이용 가구 (서랍장)	파파스 퍼니처	네티 1150 베이비장 주니어 장 어린이 키즈 옷장 미니 5단 아기방 유아 아기 서랍장(제조)	총 납 기준치 1.1배 초과 (기준치: 90mg/kg 이하) 총 카드뮴 기준치 33.7배 초과 (기준치: 75mg/kg 이하) 안전성(등분포하중, 수직력) 부적합 (기준치: 전도되지 않을 것) 안전성(벽고정장치) 부적합 (기준치: 제공될 것)	
3	어린이용 가구 (책상, 의자)	(주)비디엘린	DPDSA-001-PK(수입)	총 납 기준치 15.3~30.6배 초과 (기준치: 100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98.9~136.8배 초과 (기준치: 총합 0.1% 이하)	
4	유아용 의자	디어 아이	(제품명) 미코유아식탁의자(수입)	안전성 시험(측방) 부적합 (기준치: 넘어지거나 다리가 마룻바닥으로부터 들어 올려지지 않아야 한다)	
5	유모차	(주)제이투 스포츠	S192(수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54.5배 초과 (기준치: 총합 0.1%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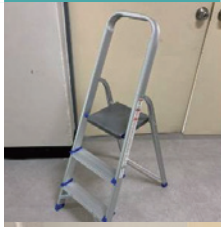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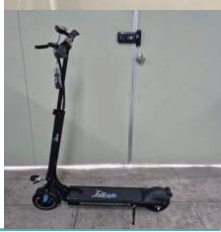
어린이제품

No.	품목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제품 사진
6	어린이용 우산	(주)스텝케어	우산-디노톤그린(수입)	총 카드뮴 기준치 5.8배 초과 (기준치: 75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41.3~340.6배 초과 (기준치: 총합 0.1% 이하)	
		오즈키즈	(제품명)우산- 두파두파디노우산, (품번)O11R11B(수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74.1~383.2배 초과 (기준치: 총합 0.1% 이하)	
7	완구 (활동 완구)	파피루스	페어리 미끄럼틀(수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412.2배 초과 (기준치: 총합 0.1% 이하)	
		(주)이토	SLIDE-SERIES(수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44.8배 초과 (기준치: 총합 0.1% 이하)	
8	완구 (봉제 인형)	(주)해피월드 인터내셔널	해피월드봉제_ KCL20(수입)	총 카드뮴 기준치 5배 초과 (기준치: 75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423.6배 초과 (기준치: 총합 0.1% 이하)	
9	완구 (미술 공예)	헤안	십자수(수입)	총 납 기준치 514.5배 초과 (기준치: 100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29.9배 초과 (기준치: 총합 0.1% 이하)	
		(주)아성HMP	자석완구-QD20(수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1.8배 초과 (기준치: 총합 0.1% 이하)	
		스마트 스터디(주)	핑크퐁 워터펜(제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5.7배 초과 (기준치: 총합 0.1% 이하)	
10	완구 (발사체)	(주)대양무역	GUN(수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02.3배 초과 (기준치: 총합 0.1% 이하)	
11	완구 (역할 놀이)	(주)에스엠 코프	아이팜 해피 마켓놀이 (수입)	총 카드뮴 기준치 1.5배 초과 (기준치: 75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9.6배 초과 (기준치: 총합 0.1% 이하)	

어린이제품

No.	품목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제품 사진
12	학용품 (연필)	(주)포인트 라인	피에스타 색연필 60색 (수입)	총 납 기준치 72.9~152.1배 초과 (기준치: 90mg/kg 이하)	
13	학용품 (필통)	(주)한들	봉제필통(수입)	총 납 기준치 5.3배 초과 (기준치: 300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22.1배 초과 (기준치: 총합 0.1% 이하)	

생활용품

No.	품목	제조사명	제품(모델)명	부적합 내용	제품 사진
1	휴대용 사다리 (계단식 소형 사다리)	크레텍책임	SLJ03(수입)	발붙임 사다리 강도시험 부적합 (기준치: 시험 후 사용상 지장을 줄 수 있는 파손, 변형, 어긋남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함)	
2	휴대용 사다리 (도배용 사다리)	크레텍책임	SLW02(수입)	사다리 강도시험 부적합 (기준치: 시험 후 사용상 지장을 줄 수 있는 파손, 변형, 어긋남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함)	
3	전동보드 (전동 킥보드)	다음 네트웍스 주식회사	LGO-E350lite(수입)	과충전시험 부적합 (기준치: 시험 후 발화 및 폭발이 없어야 함)	

타이어

No.	제품(모델)명	브랜드	규격	수입자명	부적합 내용	제품 사진
1	RS606 R4	Zeknova	245/40ZR18 97W	제크노바타이어	고속성능 기준 (고속성능 시험 중 슬 더부 파손)	
2	GENCO G7	GENCO	255/55ZR18 109Y	바꾸바꾸	고속성능 기준 (고속성능 시험 중 사 이드월 파손) 표시사항 미비 (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미표시)	

가장 포근해야 할 가정,
안전 햇살 반짝 뜨도록

창문 블라인드 안전관리 강화

블라인드는 실내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려주는 가구이다.

특히 각도를 조절해 차광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깔끔한 외관으로 심미적인 만족감도 줄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

하지만 각도 조절 시 비드체인이라 불리는 줄을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가정 내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에 국표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블라인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블라인드 줄에 걸린

어린이 질식사고 발생

2015년, 경기도의 한 가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새 7세 아이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린 것이다. 뒤늦게 발견한 보호자는 즉시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으나 안타깝게도 20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한편,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네 건의 블라인드 줄 관련 안전사고가 접수된 것이 확인됐다. 모두 7세 이하의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질식한 사고였다.

OECD도 경고한

블라인드 영유아 안전사고

블라인드 줄로 인한 안전사고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OECD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8세 이하 블라인드 안전사고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285건이며 이 중 184건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또한 캐나다, 프랑스, 일본, 호주 등에서도 블라인드 줄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블라인드 줄을 가정 위해요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표원·소비자원

창문 블라인드 안전주의보 발령

국가기술표준원과 소비자원은 블라인드 줄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2016년 6월,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블라인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0개의 제품 중 안전·품질 표시를 정확히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단 한 개에 불과했다. 20개 중 9개는 표시사항 전체를 누락 했으며, 나머지 10개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일부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유통되고 있었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블라인드를 제조·유통하는 사업자가 안전기준과 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에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주의를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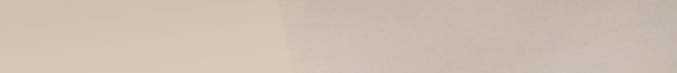
창문 블라인드 안전요건 주요 개선사항

- ① 블라인드 당김줄의 최끝단이 바닥에서 80cm이상 높이에 위치해야 함
- ② 10kg 하중에서 분리되는 당김줄을 6kg 이하에서 분리되도록 하중 적용요건 강화
- ③ 블라인드가 분리되는 시간은 5초 이내여야 함
- ④ 고정 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블라인드가 동작하지 않아야 함

국가기술표준원

창문 블라인드 안전기준 강화

국가기술표준원은 2016년 10월 7일 어린이 질식사를 유발하는 ‘창문 블라인드’의 강화된 안전기준을 입안예고했다. OECD가 창문 블라인드 줄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안전 캠페인에 따르면 어린이가 있는 일반 가정에서는 줄이 없는 제품사용을 최적의 안전 요건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사정상 줄을 포함하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요건을 개정한 것이다.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는 가정, 호텔, 유아원, 유치원 등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이며 기타 사무실, 공장, 제한구역 등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에는 표시사항을 표기하고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창문 블라인드 안전기준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건강도 트렌디하게 지키자 헬시플레저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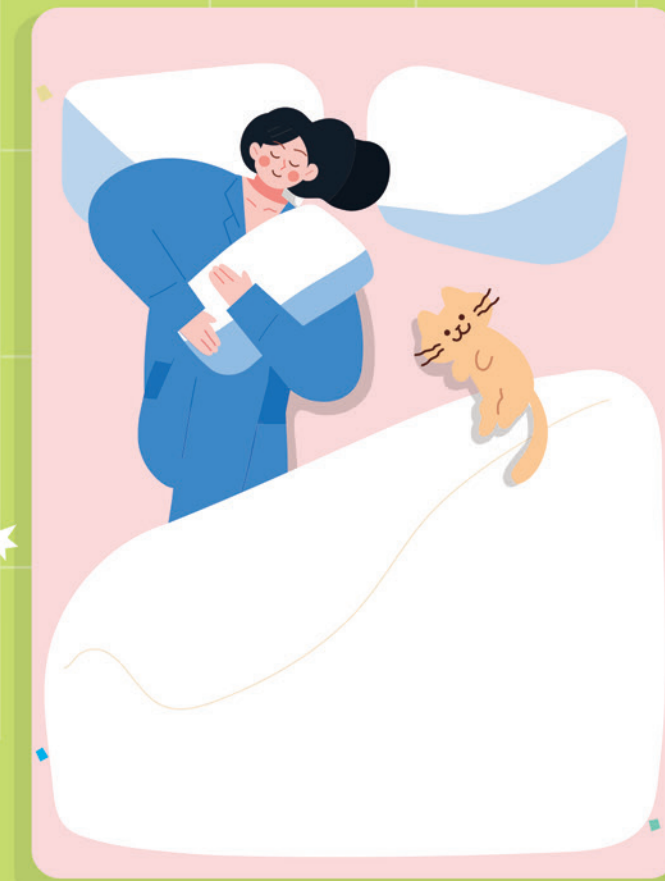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느 때보다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충동을 절제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즐겁고 편하게 건강관리를 하자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가 떠오르고 있다.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들의 제품·서비스 생산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 지속가능한 건강관리로의 변화를 알리는 헬시플레저에 대해 살펴보자.

헬시

Healthy

불편한 식단은 이제 그만!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이 맛있는 음식이나 디저트를 먹으며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를 느끼던 때는 지났다. 최근 SNS에는 '건강식단'이라도 염분을 최대한 낮춘 채식 위주의 식단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이스크림 하나, 요거트 하나를 먹더라도 맛이 가장 중요해지는 추세다. 글루텐 프리 빵과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그릭요거트, 두부로 만든 면 요리 등 질 좋은 천연재료로 만든 맛 좋은 식단을 찾는 이들이 증가했다. 신선한 과일을 주재료로 한 디톡스 주스까지 곁들여 칼로리는 낮추고 맛과 영양을 잡는 건강식을 즐긴다. P사는 소비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영양제를 보내주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식습관을 고려한 식단을 보내주는 관련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다.



내 숙면은 내가 챙긴다

현대인들은 취침 시간이 부족하거나 쉽게 잠들 수 없고, 아무리 자도 졸리다. 숙면을 포함한 잘 쉬는 방법 역시 나를 위한 헬시플레저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람들은 높이와 쿠션감 등 내 몸에 딱 맞는 침구류부터 피로에 효율적인 안마기기까지 나의 휴식과 건강을 위해 흔쾌히 지갑을 열고 있다. 기업들도 사람들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한 침대 제조업체에서는 개개인에 맞는 높이와 온도를 조절해주는 스마트 침대를 개발하는 등 이미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솔루션 역시 최적의 환경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여 건강을 챙기는 헬시플레저 방법이다.

Pleasure

플레저

정신건강도 개인 맞춤으로 재미있게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정신 건강을 관리할 다양한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이미 온라인상에 넓게 퍼져있는 재미로 보는 타로, 오늘의 운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에 건강과 재미를 한 번에 챙기는 것이다. 나를 위한 일에는 기꺼이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혼자 캠핑을 떠나 물멍과 불멍, 풍경멍을 즐기기도 한다. 머릿속을 잠시 비워 여유를 느끼고 가벼운 재미를 즐기기에 제격이라 세대를 뛰어넘어 많이 실천하고 있다.



제품
안전 관리의 조건,

소비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Product

이득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안전에 해당하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 강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제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노력들이 필요할 터인데, 거기에는 제품 리스크 정보에 대한 소비자와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포함된다. 소비자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제품에 결함 발생 시 리콜 정보는 물론이고,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 오인사용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정보 등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 이 정보전달은 일방적인 형태보다 쌍방향적일 때 더 효과적이다.

Safety

안전정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각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안전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나 기관에서도 소관 품목별로 소비자안전대책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주기적으로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은 리콜 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소비자 불안이 초래되기도 한다. 특히 식품이나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작년에도 영유아 욕조 마개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다량 검출되어 리콜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관련 사업자는 사과 성명을 내고 환불조치를 하였지만,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이에 수긍하지 않았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위대한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였고 끝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조치를 시행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상당수 남아있어 우려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연발하는 경우도 있다. 15년 이상 경과한 오래된 전기제품으로 인한 화재 우려로 사업자가 자발적 리콜을 하였지만 일부 소비자들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안전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준다. 안전정보의 생산 자체도 물론 중요하다. 안전정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생산된 안전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른바 소비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접근성 높여야

소비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다른 활동 목표를 추구한다. 하나는 사람들을 경각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심시키는 것이다. 제품 안전 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위해제품은 즉시 수거해서 리콜하도록 소비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리콜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

노후 김치냉장고 사례를 보면, 사업자의 리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호응하는 리콜 비율이 절반 정도에 그쳐 리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50여 건의 화재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올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어 각 지역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도 해당 제품 사용 소비자들에게 리콜을 받으라고 촉구하는 주의보를 내고 있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해제품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이나 정부의 리콜 명령 조치도 중요하지만, 리콜정보를 확인해서 소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시책들이 뒤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소비자정보 종합 포털인 “소비자24”는 소관 품목별로 나누어진 리콜정보를 모두 한 자리에 모아 두어 한꺼번에 검색·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활용 편의성을 높였다.

제품의 결함이 없더라도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 사용 중에 위해사고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방적 조치를 위한 주의나 경고도 필요하다. 한 예로 안마의자 끼임 사고로 골절 상해가 다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2세 영유아가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끼임 사고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권고하여 끼임 감지센서를 장착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제품사용설명서를 잘 활용할 필요

이처럼 제품의 표시나 사용설명서는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특히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예로 용기가 비슷하여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눈에 넣어서 발생하는 안구손상 위해사고 사례가 매년 50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도 ‘올바른 안약 사용법 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켰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는 무좀약의 경우 용기에 발바닥 그림을 표시해 줌으로써 직관적으로 오용 가능성을 사전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이 같은 표시개선 권고에 사업자도 호응하여 향후 출시되는 제품부터는 픽토그램 표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비자안전사고는 소비자가 용도와 다르게 잘못 사용하는 오사용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를테면 당초 제품 용도

와 관계없이 영유아들이 입으로 가져가 발생하는 삼킴사고 피해가 그 예이다. 대표적인 것이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이다. 이 사고도 매년 50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의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86%가 3세 이하 영유아들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올해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경고 표시와 함께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제품 안전 문제는 제품 사용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위해로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 한 예로 새로운 간편 조리기기 제품인 에어프라이어가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정 사용 조건하에서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 감자튀김을 고온으로 장시간 조리할 때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량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에 소비자주의를 환기시키고, 사업자들에게는 제품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에 이 사실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리스크 관리로써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연후에 일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을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하고 예방조치에 필요한 소비자의 대응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소비자안전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관리로 환류되는 ‘리스크 관리’의 한 영역이기도 하다.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도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반드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에 잘 대처하지 않고서는 리스크 관리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성공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기법도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요 이해당사자인 소비자들의 정보요구를 잘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메시지 전달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리콜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들의 불안이나 우려에 대응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기준을 몇 배 초과하였으니 리콜시켰다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 위험에 대한 정보가 불명료하거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소비자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소비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밑바탕이 될 때만이 소비자안전관리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득 연

(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산자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환경부)
자동차안전도평가위원회 위원(교통안전공단)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위원(중소벤처부)

(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실장
(학력)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겨울철 야외 활동의 필수품, 스키! 인증 받은 제품으로 타자

날이 추워지면서 겨울철 야외활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단연 스키장인데요.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키나 보드를 탈 때도 안전사항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각 용구마다 그 기준이 달라 사용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전인증은 받았는지, 내 몸에 맞는 제품인지 TV 애니메이션 <뽀빠이>를 통해 살펴볼까요?



뽀빠이가 타는 스키는 안전한 제품일까?



인기리에 방영됐던 애니메이션 <뽀빠이>에는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세지는 뽀빠이가 나옵니다. 덜렁대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 의리가 강한 모습으로 감동과 웃음을 주는데요. 올리브를 구하기 위해 스키를 타고 악당을 쫓아가는 에피소드에서 그런 뽀빠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뽀빠이가 나무로 급하게 만든 스키는 튼튼하지도 않을뿐더러 발을 고정해주는 바인딩도 헐거워 보입니다. 이 스키는 과연 안전할까요?

스키를 탈 때는 바인딩 뿐만 아니라 스키화, 스키폴, 스키복 등 스키타기에 필요한 장구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헬멧이나 고글 등의 안전장비도 잊어서는 안되는데요. KC인증을 받았어도 겉면에 표시된 표기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스노보드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스키용구와 스노보드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즐거운 겨울 야외 활동을 위해 스키와 보드 고르는 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스키와 보드를 고르는 것부터 안전하게!



제품 표시사항도 필수로 확인하기



겨울철 야외활동을 대표하는 스키와 보드는 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 제품입니다. 국가 기술표준원에서는 경이용 및 특수용도를 제외한 스키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스키판과 스키화, 스키 바인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키판은 윗면, 옆면, 활주면 등의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며 핀홀, 홈, 칠열록, 부풀음 등이 없는 제품으로 골라야 하는데요. 자신의 신장에 15cm를 더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키화는 정해진 치수 중 내 발에 맞는 제품을 골라야 넘어질 때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어보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을 때 뒷부분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백이 남는 것이 좋은데요. 스노보드 역시 제품의 변형이나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뾰족한 면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스키와 스노보드의 바인딩도 스키와 스키부츠를 단단히 연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제품으로 골라야 합니다.

스키나 보드에는 안전기준 표시사항이 있는데요. 제품 또는 최소포장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키판과 스노보드에는 제조연월과 스키 사용 시 주의사항, 관리방법 등이 표시됩니다. 안전기준 상으로는 스키판과 스노보드 바닥을 가끔 왁싱을 해줄 것과 엿지날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을 세워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키화는 수명이 있는 제품입니다. 제조연월을 기준으로 7년에서 최대 10년을 사용하는데요. 스키를 타기 전 크기를 확인하고 조임장치를 확실하게 조인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바인딩에는 설명서가 첨부됩니다. 바인딩의 손질, 보관, 기능 유지의 방법과 바인딩 착탈의 방법, 전도되었을 경우 바인딩을 벗어내는 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으니 꼼꼼한 확인을 거쳐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생활제품 속 KC마크, 안전을 챙겨요 ✨

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번 겨울호에도 빠지지 않고
제품안전정보센터 SNS(@kats.safetykorea)에서
#KC내돈내산 이벤트가 진행됐는데요.
생활제품 속 KC마크를 찾아 인스타그램에
태그해주신 구독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제품안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겨울호 #KC내돈내산 이벤트
당첨자들을 만나보세요.

보조배터리 핫팩

♡

💬

🔖

날씨가 추워서 보조배터리 겸 LINE 핫팩
구매했어요~
충전식이라서 버릴 일도 없고 환경
살리기에 좋고 디자인도 이쁘고
만족만족. KC인증 찾았지요.

가습기

♡

💬

🔖

국가인증통합 KC인증마크는 정부에서
제품안전 관리된 제품에 표기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 꼭 필요한
가습기 밑을 보니 마크가 딱~보이네요!
안심하고 사용할게요^^



미니 선풍기

♡

💬

🔖

겨울맞이 집 정리!
이번 더운 여름, 나와 오래 함께한
귀여운 미니 선풍기!
KC인증 받아 안전하게 잘 사용했다~

KC생활제품

♡

💬

🔖

이렇게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스마트폰 충전기,
보조배터리, 기타 등등 다양하게 많이 쓰는
제품들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소중함을
깨닫는 이벤트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

💬

🔖

코로나로 여행 못 가니까 기분이라도
내라고 친구가 준 캐리어 모양 블루투스
스피커~ 여기에도 KC인증마크가 있다!!
kc인증마크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부탄가스

♡

💬

🔖

생활 속에서 찾아본 KC인증마크!
캠핑 가서 먹거나 평소 고기 구워 먹을 때
자주 쓰는 부탄가스~ 안전과도 직결되는
제품이라서 꼭 마크 확인해요

#KC내돈내산
#KC인증
#제품안전



제품안전정보센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어린이용 겨울 외투 KC마크 놓치지 마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 겨울이 돌아왔다.

춥지만 청량한 이 계절을 느끼기 위해 사람들은 하나둘 외투를 꺼내 입고 야외활동을 즐길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 안전이 역시 새 외투를 사기 위해 부모님과 옷가게에 들렀다.

안전이 아빠는 무조건 따뜻하고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며 아무 외투나 사려고 한다.

하지만 엄마와 안전이는 외투 하나를 고를 때도 꼼꼼하게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아빠를 말리는데.

안전이와 함께 안전한 어린이용 겨울외투 고르는 법을 알아보자.



제14회 '2021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

함께 사는 대한민국, 함께 하는 제품안전! 모두가 만들어가는 안전한 세상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제품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제품안전 척도를 보여주는 지표를 공개하기도 한다.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소비자와 기업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2021 제품안전의 날'에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안전관리는 상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제14회 '제품안전의 날'이 개최되다

'제품안전의 날'은 2008년부터 '전기제품안전의 날'과 '공산품안전의 날', '승강기안전의 날'을 통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품안전 분야 행사이다. 소비자와 기업의 자발적 제품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제품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날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제품안전 활동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날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계적 일상 회복 거리두기로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참가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됐지만,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분위기였다.

제품안전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짚다

첨단 기술개발과 제품의 융복합화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생산과 유통방식이 다양해지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증가되어 간다.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제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제품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자리 잡았다. 이상훈 원장은 "제품안전관리는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최선의 장치임을 명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KC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습관과 불법·불량 제품을 감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더욱 풍요로운 우리 삶을 위해 위해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제품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더불어, "오늘 제품안전의 날을 통해 제품안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제품안전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다

‘제품안전의 날’에는 제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 이 포상은 불법·불량 제품 등의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거나 제품안전 교육을 통해 제품안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이날 열린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31명, 유공단체 10개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포상 유공자로는 (주)윙닉스의 박수홍 이사, 삼천리전자(주)의 강성식 부사장, 태양산업조명의 양우석 대표와 (재)FIT시험연구원의 송운준 본부장이 박수갈채를 받았다. 유공단체로는 하츠와 선경산업이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5월부터 10월까지 1,060개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MZ세대에게 제품안전 의식을 전파한 대학생 홍보단과 어린이제품안전에 대한 그림으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어린이들에게도 각각 표창이 수여됐다.

제14회 ‘제품안전의 날’은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노력들을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날로 마무리가 되었다.

오늘 제품안전의 날을 통해
제품안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제품안전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활발해지는 온라인 시장 국민안전 위한 실천방안 모색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이어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이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미국과 유럽(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안전정책기관이 참석하여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포럼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대응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주)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가 ‘신뢰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AI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AI 사용을 위해 신뢰할만한 데이터와 시스템이 필요하며, 우리가 더욱 논의해야 하는 사항과 해외 사례들까지 알아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세계 전문가들이 IoT 등이 제품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융복합 제품의 규제혁신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세계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온라인 시장이 활발해지고 융복합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시장에 필요한 제품안전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제품과 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 국가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비자 안전 가이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정보기술(IT)·인공지능(AI)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융복합 제품의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주요국들과 제품안전 확보 방안을 공유하고, 우리의 정책과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장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복합제품의 안전관리를 논의하다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





KC 마크가 사라진 리콜제품 팔지도 사지도 말아요

성시우(천안아름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동화책, 옷들에 KC 마크가 사라졌어요! 문제가 있어 반품된 리콜 제품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던 KC 인증 마크가 사라진 것과 같아요.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리콜 제품은 팔지도 사지도 말아요!



살펴보고 확인하여 구매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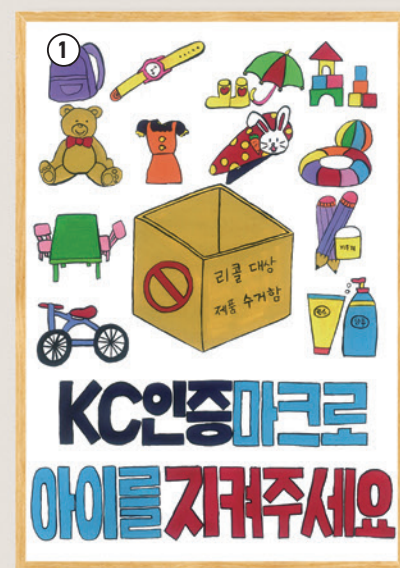
박연수(온양풍기초등학교 6학년)

온라인몰에서 어린이 제품 구매 시에는 안전한 제품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자세히 확인하여 구매하자는 의미를 따뜻한 아빠 품 안에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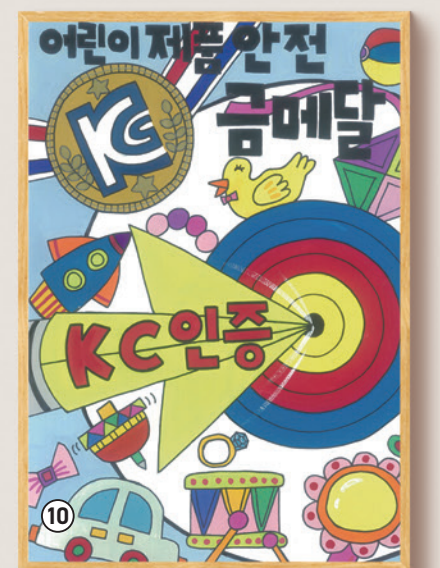


2021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수상작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KC인증을 받았는지부터 유해물질은 없는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2021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을 개최했다. 어린이가 바라보는 안전한 세상을 그림으로 만나보자.



- 정유주(직산초등학교 4학년)
- 강민승(송중초등학교 2학년)
- 김라울(서울길음초등학교 6학년)
- 성윤후(천안아름초등학교 4학년)
- 윤지후(중평초등학교 6학년)
- 윤효주(이안유치원)
- 송지우(예인유치원)
- 조효원(온양동신초등학교 3학년)
- 최지아(유림초등학교 5학년)
- 한소정(유림초등학교 4학년)



제품안전정보 활용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 기여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 현장

지난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각 분야의 기업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인증·리콜 등 제품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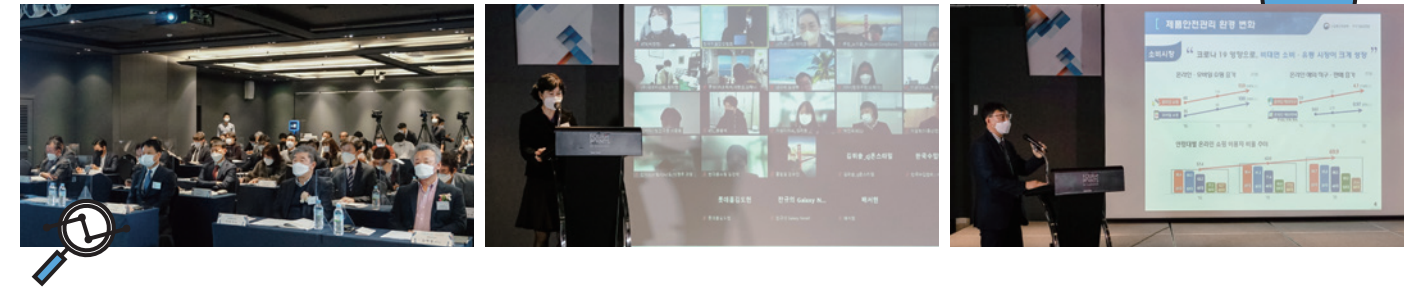


< 포럼 창립 총회 개요 >

- 일시/장소 : 11.18(목) 오후 2시 / 포포인츠 바이 웨라톤 구로 호텔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제품안전협회
- 참 석 자 : 온라인 쇼핑몰, 소프트웨어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대면, 비대면 병행 참석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 출범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 출범식을 위해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을 비롯해 쿠팡(포럼 의장)과 다이소, 한샘, 위메프, 우리홈쇼핑 등 30여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전과 완구 등 70만 개에 이르는 제품에 대한 자료를 Open API 형태로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가 갖고 있는 제품안전정보를 잘 활용하게 되면, 기업이 비대면 환경에서 입고제



품을 검사하거나 판매 중 제품의 위법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품안전을 관리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면서, “특히, 포럼에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품안전관리에 적극 나서 준다면, 향후 비대면 경제, 온라인 구매에서 제품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의 자리에서 뜻을 함께한 기업들은 제품안전정보 활용 방법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정보 품질을 개선하며, 정보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을 밝혔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키는 온라인 제품 안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 온라인 거래는 다수의 입점 판매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불법·불량 제품을 찾아내기 어렵다.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열린 이번 포럼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비대면 위주의 기업과 제품안전정보를 가공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부와 기업이 안전관리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제품안전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쇼핑몰과 유통기업들은 업체 등록 제품이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쳤는지의 여부와 리콜 여부에 대한 정보를 Open API로 받아 자체적으로 차단하고, 소프트웨어와 벤처, 금융 서비스 기업들은 안전정보 앱, 시장조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ESG 평가 등에 안전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제품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으로 소비자의 안전요구에 걸맞게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품안전관리에 적극 나서 준다면,
향후 비대면 경제, 온라인 구매에서
제품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통신
제품안전과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everyone

일상생활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전기용품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운영하며 전기용품 위해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세이프티 코리아> 겨울호에서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 KC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인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
go.kr) > 정보공개 > 인증정보 검색에
서 제품명 또는 모델명을 검색하면
제품인증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소비자 전기용품을 구입했는데 KC
마크가 없는 것 같아요. 불법 제품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불법·불량 제품은 한국제품안전관리
원 제품신고센터(1833-2233)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외
에서 전기용품을 직구하려고 하는데,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직구)하는 전기용품은 모델별 1
개의 제품에 한하여 안전인증이 면제
됩니다(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다만 법인사업자가 구매
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용 목적임을 인
정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KC인증을 받은 전기용품만
구매대행 할 수 있나요?

전기용품이 구매대행 특례제품에 해당
하는 경우 모델별 1개의 제품은 KC마크
가 없는 제품도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례제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KC마크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합
니다. 구매대행의 특례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
조 및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전기용품 KC인증은 어디에
서 받을 수 있나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정책 >
제품안전 > 전기용품에서 안전인증
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하러
고 하는데, KC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른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품목
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인증·표준 정보센터(138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KC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어떤 내용을 표시해야 하나요?

①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
합성확인의 마크 ② 안전인증·안전확
인신고 번호 ③ 모델명 ④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
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⑤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제조연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
자가 제조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⑥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
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⑦ 개
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
시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 운용요령 제57조 및 별표 23

사업자 제품 시험을 위해 전기용품
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KC인증을 받아
야 하나요?

제품 시험을 위해 전기용품을 수입하
는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 받을 수 있
으며, 이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833-4010)에서 KC인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www.safetykorea.go.kr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SAFETY KOREA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눈이 시리도록 청명한 하늘을 간직한
눈의 계절,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해를 기다립니다.
「세이프티코리아」 겨울호에서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다양한 제품안전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호가 구독자분들에게
의미 있는 마칩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이프티코리아」에서는 구독자 여러분께
더 재미있고 유용한 양질의 콘텐츠를 전해드리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애정 어린 칭찬과 질타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찍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세이프티코리아」는
구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SAFETY KOREA를 e-book으로 만나보세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go.kr) > 알림뉴스 > 간행물

소비자 안전 위한 제품사고 조사 결과, 「제품사고이야기 WHY」 발간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제품 사용 중 발생한
다양한 사고 사례 및 제품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담은 「제품사고이야기 WHY」를 발간했다.



'20년 접수된 제품사고 55건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29건의 사고에 대한 책자 발간

제품사고 사례

- 옷을 꺼내 입으려고 서랍장을 여러 개 열었더니 앞으로 전도
- 강물에서 카약을 타고 있던 중 튜브가 터져 가라앉은 사고



제품사고신고는 1600-1384 /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 제품사고신고



책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 알림뉴스 > 간행물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용 / 모바일용 e-BOOK 보기 : <http://www.ttsbook.com/safety/vol32/book.html>

제품사고·결함신고는 제품안전정보센터 ☎ 1600-1384
www.safetykorea.go.kr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